

전시회 소식

PREVIEW IN DAEGU 2023 전시장 內 'KORTEX관' 참가

우리 협회는, 1976년 제1회 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47년간 개최를 이어 오던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KORTEX)' 2023년도 3월 전시회 단독 개최는 어렵게 되었지만, 47년간 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브랜드 파워를 키워 온 'KORTEX' 브랜드를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2023 전시장 내 'KORTEX관' 구성을 통해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내년 PID 2023 전시장 내에 구성 예정인 'KORTEX관' 참가업체들에게는 경상북도 예산지원으로 초청되는 40여명의 해외 바이어들과 구매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청 바이어는 'KORTEX관'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추천에 더해 우리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해외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추천 등으로 List Up할 예정이며, 초청이 결정된 바이어들에게는 항공비 일부, 체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협회는 향후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KORTEX)' 단독 개최 부활을 목표로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 및 시장정보

위안화 약세는 중국 수출에 도움이 될까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이후 중국 위안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수출기업들이 위안화 약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둔화라는 악재가 중국의 무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은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수출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악재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중국산 전기담요가 유럽연합(EU)·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지로 수출된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산 히터의 EU 수출은 47% 증가했다. 올 겨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는 유럽에서 중국산 난방제품 수입이 급증했지만, 중국 전체 수출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마로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기간 목격했듯 소비 회복력이 중국 수출을 지원할 기동"이라며 "유럽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가정 소비 둔화 등으로 위축됐고 공급망 붕괴와 기업 활동 둔화는 내년 많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키츠 분석가는 무역 전망은 환율보다 글로벌 수요에 더 좌우되기에 위안화 약세가 중국 수출을 크게 신장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위안화 환율은 9월 28일 역외시장에서 달러당 7.2647달러까지 상승, 역대·역외 환율을 구분해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쿠키츠 분석가는 "달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주요국 통화가 하락했고, 다른 통화들 가치가 위안화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며 "실제로 무역 관점에서 위안화의 가치는 올해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몇 달간 수출 둔화와 계속되는 내수 부진의 충격을 상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등의 경기 하강으로 8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6 달 만에 한 자릿수로 크게 떨어졌다.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에 그쳐 7월(18%)보다 크게 부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해상 운임이 최근 급격히 떨어진 것도 글로벌 수요 약화를 반영한다.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 드루리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따르면 지난주 상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임은 3779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3개월 전의 절반 수준이며 작년 동기 대비로는 11% 하락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해상 물류가 특수를 이루는 때에 해상 운임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지만, 해운사와 물류회사들은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은듯하다고 우려한다. 왕쉬원 중국 상무부 부장은 향후 6개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외부 수요 감소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다른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여행 제한 등'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중국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오프쇼어링(생산기지 해외 이전) 위험을 인지해야 하며 외국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과 사업 조건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 중국전문가포럼(CSF) >

▪ 태국, 10월 1일부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10월 1일부로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입국 시 필요서류인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있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의무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태국은 10월 1일부 입국사증 면제 관광객의 최장체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한시적 운영하고 있으며, 입국사증 면제 관광객의 체류기간 연장 제도는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 Toray, 친환경 비건 레더 부직포를 사용한 항공기 헤드레스트 커버 개발

일본의 Toray Industries는 아오모리현 스타트업 기업 appcycle과 협업을 통해 Toray의 친환경 비건 레더 부직포 「Ultrasuede™ nu」를 채용한 ANA 항공기 좌석 헤드레스트 커버를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 출처 : ANA >

Toray가 최근 개발한 동 부직포는 표면에는 100% 식물유래 초극세 PET 섬유를, 내부는 30% 식물유래 Polyurethane과 30%의 재활용 PET을 채용한 스크림이라 불리는 강화 섬유를 활용하여 생산하였으며, 가죽 외관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동 프로젝트에는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의 섬유 스타트업 기업 appcycle과 협업하여, 사과주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껍질 및 찌꺼기를 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ESG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상생에도 공헌하고 있다.

< 출처 : 한국화학섬유협회 >

▪ 섬유기계 수출·입 통계 (2022년 1 ~ 8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1,346,203	650,871
국 가 별	미 국	693,915	5,257
	베트남	81,070	105,370
	중 국	68,180	300,070
	인 도	31,723	547
	유럽(계)	62,886	44,094

■ EU 주요 환경 정책과 시사점

EU는 그린딜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여 탄소배출량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순환경제 달성, 소비 행태의 녹색전환 등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환경 규제의 적용 대상 및 기준이 확대·강화되고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신규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어, EU의 환경 정책이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EU는 산업계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신산업전략(New Industry Strategy)과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버전의 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한 이후 EU 차원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해 폐기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폐기물 기본지침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50%까지 감축할 계획이며 유해 화학물질 절감 및 관련정보 공개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SCIP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품 생산·판매 단계에 국한되었던 제품 생산자의 재무적/관리적 책임 범위를 제품의 수거·재활용·폐기 단계까지 확장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세부 조항에,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 및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할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2024년까지 통합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기준을 회원국에 제시하고 회원국 내 국내법 전환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EU는 환경보호와 유해물질의 생태계 유입 차단을 위하여 규제 적용 대상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강화된 환경기준 준수 입증 가능한 제품만 EU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EU의 환경정책 변화와 규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자사 생산 제품 및 공급망 정보 분석을 통하여 EU의 환경 규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 올해 1~9월 베트남 섬유류수출 350억 달러 기록

올해 1~9월 베트남 섬유류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한 3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세계 주요국 인플레이션 및 소비수요 감소로 베트남 섬유류 기업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 외에도 러시아, 기타 유럽국가, 멕시코 등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수출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바지, 티셔츠 등 기존에 취급하던 품목 이외에 추가품목을 수출하며 품목다변화에도 노력 중이다. 경쟁국보다 먼저 섬유류 수출을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 베트남 섬유류산업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은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등 주요 섬유류 수출국 중 가장 먼저 공장 운영정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섬유류산업은 수주물량 및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3/4분기부터 수주물량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섬유류 주요 수입국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섬유류업계는 수주물량 감소세가 내년 1/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효과로 對EU 베트남 섬유류 수출 관세가 2~4% 인하되면서 對EU 수출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 태국, 10월 1일부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

2022년 10월 1일부로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입국 시 필요서류인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있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의무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태국은 10월 1일부 입국사증 면제 관광객의 최장체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한시적 운영하고 있으며, 입국사증 면제 관광객의 체류기간 연장 제도는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 기타 안내

■ 제1기 박정희 Leadership 새마을 아카데미 신청 안내

구미에 소재하는 『새마을 재단』에서는 도내 기관, 단체, 기업, CEO등 리더를 대상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메타버스시대에 알맞은 박정희 리더쉽과 조직경영, 새마을운동과 경제발전, 새마을운동 성공원리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대의 새마을운동,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해 박정희 리더쉽경영 새마을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기간 : 2023. 3.~ 2023. 10.(20회) / 주 1회

※ 하절기 7~8월(2개월)은 방학

* 장소 :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 1층

* 인원 및 대상 : 50명 정도(수강 희망자에 따라 결정)

* 주요내용 : 최고 수준과정 커리큘럼으로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쉽과 경영
-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경제발전
- 새마을운동 발상지 등 현장 견학(포항, 청도 등)
- 새마을 보급국가 시장개척 및 해외 봉사활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 4차산업 혁명시대 새마을 자산공유와 국민과 인류 행복 기여
- 기타 세계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 원우회비 : 100만원 정도

(식비, 간식비, 현장견학비 등에 사용)

- 강사 초청, 차량임차 등 운영경비는 재단에서 부담

* 신청 : 새마을 재단 조성희

(054-716-2582, 2562 / 010-8962-6680

※ 신청문의 : 한국섬유기계협회 상무이사 조성환

(053-817-5954 / 010-4511-0800)

* 후원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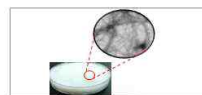
∴ 한국섬유기계협회 소식

■ 효소 처리를 통해 식용 가능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기반 코팅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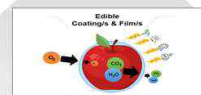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센터에서는 푸드팩토리,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와 공동으로「바이오매스 기반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및 식용 코팅제 제품화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과채류는 수확 후 증산 작용과 호흡에 의해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물리적 손상과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짧아 포장, 운송 과정에서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며, 농식품 폐기물 중 21.6%를 차지하므로 과채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자연 생태계로부터 유래한 바이오매스 자원인 셀룰로오스를 생물학적(효소) 전처리를 통해 섬유 간 결합력을 약화시킨 후,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제조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소재로 사용하며, 식품 첨가물로 먹을 수 있고, 대량 제조가 가능한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셀룰로오스는 불용성 섬유로 사람의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 체중 감소, 혈당 저하, 체내 포도당 수치 유지, 지질 저하 및 완화제 효과를 보이고 또한 인체 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β(1->4 glucoside bond를 이루고 있어 코팅 시에도 starch 유래 식용 코팅제 등과는 다르게 칼로리 증가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식이섬유라는 장점이 있다. 본 과제를 통해 식용 코팅제에 효소 처리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적용하여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기존의 식용 코팅제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한 향상을 통한 식품폐기를 저감으로
식품산업의 글로벌 Eco-비즈니스 실현

고부가가치 EN-CNF 식용코팅제 및 코팅 신선편의식품 개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EN-CNF)소재 개발
 • 대량생산에 최적화된 효소법개발
 • 셀룰로오스의 나노화 공정확립
 • 나노화조건에 따른 물성평가



EN-CNF 기반 식용코팅제 개발
 • CNF기반 코팅제 제형개발
 • 투명성, OTR, WTR 기술 확보
 • 식용코팅제의 성능 확보



EN-CNF 코팅 신선편의식품 개발
 • 소재의 대량생산 기술개발
 • 유통기한 향상 기술개발
 • 식품첨가물 등록, HACCP 인증 획득

효소 전처리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이용한
식용 코팅제 연구개발 개요

< 출처 : 바이오융합연구센터 윤철민 선임연구원 >